

전주매일

2017년 1월 20일 금요일 (음 12월 23일) 제173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인원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유례없는 쌀값 하락 지속 | 도내 농민들 “강력 반발”

정부, 우선지급금 일부 환수

유례없는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공공비축미 수매농가에 지급했던 우선지급금 중 일부를 환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농민들이 무분별한 쌀 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 항의하며 환수 거부운동을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를 대항해 우선지급금 환수에 나서야 하는 농협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처지를 아는 마당에 정부의 환수지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곤혹스런 입장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하면서 정부는 농가에 우선지급금으로 1등급 기준 40kg당 4만15,00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산지 평균 쌀값은 4만4,140원으로 우

김제시농민회 “정부 정책 실패, 농민에게 떠넘긴 것”
농협, 정부-농민 간 갈등 속 “환수금액 떠안기 어려워”

선지급금보다 낮게 형성됐다.

40kg 한포대를 기준으로 특등은 890원, 1등은 860원, 2등 820원, 3등은 730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정부가 예측한 우선지급금이 산지 쌀값을 초과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해 도내 농민들은 28억원의 환수해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197억원 규모다.

우선지급금 산지 쌀값 93% 수준으로 결정될 당시 추가 지급을 기대했던 농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농가별 반환 금액을 확정해 농협을 통해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농민들이 반발이 거세 환수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도내 농민단체 등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결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김제시농민회 오인근 회장은 “밥쌀 수입 등 정부의 양곡 정책 실패로 빚어진 결과인데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강력

한 환수 거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고 앞으로 쌀 수입과 쌀값 폭락에 대해 저항하는 농민을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양곡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당도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7일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회의’를 열고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우선지급금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면 큰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은 정부의 쌀 수급 정책 실패에서 크게 기인한 것인데도 그 피해를 농가에 이종으로 전가하는 환수 계획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회 의원은 “우선지급금 차액은 농가에서 환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결순처리 하거나 앞으로 지급될 변동 지불금 등에 상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사업대행은 맡은 농협은 환수에 실패하면 환수 금액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격정에 빠졌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환수에 나서자니 농민의 반발이 거셀 것이 뻔해 고민에 빠지고 있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환수금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농협은 정부의 사업을 대항한 것 밖에 없다”며 “빠듯한 재정 여건상 환수 금액을 떠안기는 어렵다. 정부 차원이 대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구급차가 부족해 출동하기 힘들어

도소방본부, 1대당
도민 2만5천명 담당

전북지역의 소방차가 매우 부족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출동 건수를 종합한 결과 구급차 1대당 무려 도민 2만 4,950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19구급대는 지난해 총 11만 3,878회를 출동해 7만3,240건의 구급출동으로 7만5,372명을 이송했지만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방차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화재발생 유형으로는 급·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화재가 3만 319명(40.2%)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교통사고 1만1,113명(14.7%), 추락·낙상 4,715명(12.9%)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구급출동건수는 전년대비 1837건(1.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환자 발생장소는 가정이 4만 1,656명(55.2%)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1만 2,075명, 16.0%), 주택가(4,002명, 5.3%), 공공장소(2,874명,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민근 기자

설 명절 착한소비로 지역경제 활력 충전

전주시, 사회적기업
생산물 판매행사 추진

전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지역사회의 환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살리기 위해 나섰다.

전주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설을 맞아 19일부터 23일까지(토·일 제외) 시청 및 완산·덕진구청 로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판매행사를 펼친다.

이번 설맞이 행사에는 전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10곳이 참여해 시·구청 직원들과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농·축산물과 한과세트, 김부각 등 50여 가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생산물 판매행사는 첫날인 19일 덕진구청을 시작으로 20일 전주시청 로비, 오는 23일 완산구청 로비에서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착한기업들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입하면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김영재 기자



전북도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19일 송하진 지사, 최빈식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누리 상품권 구매 업무 약정식’을 가졌다.

“전통시장을 살립시다”

도-도공무원노조, 온누리 상품권 구매 약정
오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도 펼쳐기로

전북도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19일 송하진 지사, 최빈식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하현수 전북상인연합회장, 전북은행 및 농협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온누리 상품권 구매 업무 약정식 및 축진행사’를 가졌다.

이날 전북도와 노동조합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함께 극복하는 차원에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올 해 동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억원을 구입하기로 약정했다.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 외에도 복지포인트, 시상금, 기부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어려운 이웃도 돕고, 전통시장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일에는 ‘온누리상품권 들고

전통시장 가자’를 주제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도 벌여 전통시장 활력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장보기 행사에서 구입한 물품을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할 예정이다.

송하진 지사는 “부정청탁금지법, AI 등 최근 어려운 경기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는데 도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최근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최근 10년간 50억여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왔으며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전국 최고의 부담액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여 약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하현수 전북상인연합회장은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과 인터넷 쇼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서는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더 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신장기능 저하증으로 13세 된 뱀갈호랑이 폐사

전주동물원에서 사육 하던 13세 뱀갈호랑이 한 마리가 신장기능 저하증으로 폐사했다.

전주시는 19일 호랑이의 정확한 폐사원인으로 신장기능 상실에 따른 전신대사부전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폐사한 호랑이는 전주동물원에서 2004년에 태어난 수컷으로 호랑이 평균수명이 15년보다 약 2년 가량 이르게 죽음에 이르렀다.

이 호랑이는 2016년 2월부터 급격한 식욕 저하와 설사, 기력 쇠약 등의 증상을 보여왔다.

한편 전주동물원에는 이번 폐사로 인해 시베리아 호랑이 5마리와 뱀갈호랑이 2마리만이 남게됐다.

/김민근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집중모금기간 2016.12.1~2017.1.31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용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